

## '6경기째 골 침묵' 손흥민, WBA 상대로 무득점 끊을까

등록 2021.02.05 16:30:26



[런던=AP/뉴스시스]토트넘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의 2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손흥민은 6경기 연속 침묵했고 팀은 0-1로 패해 3연패의 늪에 빠졌다. 2021.02.05.

[서울=뉴스시스] 안경남 기자 = 한 달째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WBA)을 상대로 무득점 탈출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9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WBA와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최근 부진에 빠진 토트넘이다. 지난 5일 첼시에 0-1로 패하며 이번 시즌 첫 3연패이자 홈 경기 2연패를 당했다. 승점 33점으로 리그 순위는 8위까지 추락했다.

조세 무리뉴 감독도 친정팀에 패하며 굴욕을 당했다. 지도자 커리어 통산 327번째 홈 경기에서 처음으로 홈 경기 2연패 수모를 겪었다.

한때 우승 경쟁을 하던 토트넘은 이제 4위 리버풀(승점 40)과도 승점이 7점까지 벌어졌다. 선두 맨체스터 시티(승점 47)와는 무려 14점 차이다.

손흥민도 슬럼프다. 지난달 6일 브렌트포드(2부)와의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전 득점 후 한 달째 골이 없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을 포함해 6경기 연속 무득점이다.



[런던=AP/뉴스시스]토트넘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의 2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우중 경기를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6경기 연속 침묵했고 팀은 0-1로 패해 3연패의 늪에 빠졌다. 2021.02.05.

손흥민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16골 10도움(EPL 12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단짝' 해리 케인과 함께 뒤편 골대 불운과 비디오판독(VAR)에 막혔던 손흥민은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한 뒤 파괴력을 더 잃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케인과 13골을 합작하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케인은 리버풀전서 발목을 다쳐 빨라야 11일 에버턴과의 FA컵 16강전에 돌아올 전망이다.

무리뉴 감독은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조합을 가동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브라이튼전에선 손흥민과 함께 가레스 베일, 스테번 베르흐베인 등 3명의 윙어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0-1 패배를 당했고, 첼시전은 장신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에 케인 역할을 맡겼지만, 손흥민과의 호흡이 부족했다.



[런던=AP/뉴스시스]토트넘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의 2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경기 중 판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손흥민은 6경기 연속 침묵했고 팀은 0-1로 패해 3연패의 늪에 빠졌다. 2021.02.05.

손흥민이 정규리그 12골에 묶인 사이 득점 선두 모하메드 살라(리버풀·15골)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동시에 도미닉 칼버트-르윈(에버턴),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12골)에게도 추격을 허용했다.

당장 주말 경기도 케인 없는 공격 라인을 꾸려야 한다.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가운데 누가 공격 파트너로 나설지 관심이 다.

상대인 WBA(승점 12)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강등권인 19위에 처져 있다. 최근 정규리그 4경기 연속 무승(1무3패로)으로 하락세다.

하지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후반 43분 케인의 결승골로 1-0 진담승을 거둔 바 있다. 또 2018년 5월엔 0-1로 패한 경험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